

1896년 공립소학교 첫 개교... 1925년 중·고 수업료 2원5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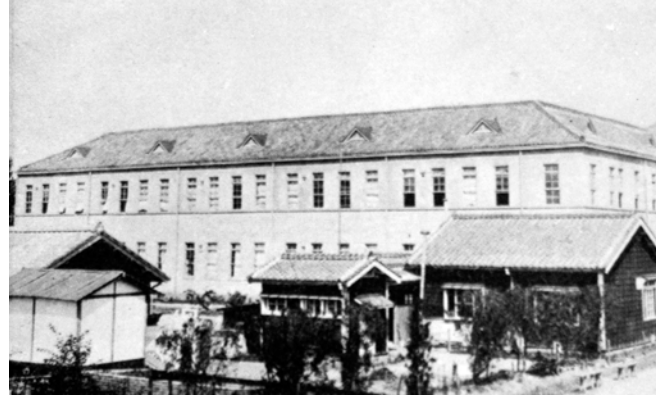
〈現 서석초〉



제1보통학교(現 서석초)



중학교(現 광주교)



고등보통학교(現 광주제일고)



전남대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18. 근대 교육시설, 학교가 들어서다

소학교 '유명무실'... 대부분 서당 이용
 일본인 진출 늘며 학교 건립 활발해져
 現 광주일고·수창초·광주교 속속 개교
 6명이던 학생 1936년 1361명으로 늘어
 해방전 광주여고·전대의대 등 설립인가

광주에 가장 먼저 들어선 근대식 교육기관은 1896년 11월 설립된 전라남도 관찰부 공립소학교다.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대한제국이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인 한성사범학교를 만든 것은 1895년이다. 이곳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2명의 교사가 이 공립소학교에 교사로 부임한 것이다. 이 학교는 1906년 11월, 이름을 광주공립보통학교로 바꿨다. 바로 지금의 서석초등학교다.

그리고 1897년 목포항 개항,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등 영향으로 일본인들의 광주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이 들어선다. 1907년 6월 설립된 광주공립고등심상소학교가 그것이다. 일본인들이 조직한 일본인회가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13년 교사를 준공해 지금의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섰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조합령을 만들었다. 광주의 경우 1907년 3월 일본인 68명이 일본인회를 창립하고, 1910년 조선총독부가 학교조합령을 발표하자 일본인회를 해산하고 1911년 1월 광주학교조합을 결성했다. 1911년 12월 29일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389호를 통해 광주학교조합구역에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 성내면 및 그 부근 1리(里) 이내의 곳으로 했는데, 당시 광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1685명이었다. 일본인 광주학교조합 조합원은 420호, 1917년에 조합원은 720호였다. 조합비는 최고 18원에서 최저 15전까지 21개 등급으로 나눠 부과됐으며, 1916년 9257원(1호당 12원82전7리), 1917년 8446원(1호당 11원 73전)이 걸렸다. 조합 측은 1913년 학교건축기체 1만5000원, 1914년 수익사업 차원인 도축장 매수 기체 4000원, 교사 증축비 1500원 등을 중앙적십자회사로부터 빌리기도 했다.

당시 한국인 교육기관으로는 앞서 광주공립보통학교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민은 이 근대식 교육을 회피하고 향교와 면·동·리에 있던 서당에 다녔다. 향교는 소위 관립 학교로 상당한 설비와 기본재산을 가지고 지방관현과 호족에 의해 경영됐다. 그러던 중 당시 유명무실했던 전라남도 관찰부 공립소학교를 1906년 광주공립보통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 학교 소유재산의 소득과 일제의 임시 은사금을 학교에 투입했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한국인 교육기관을 손질한 것이다. 미국 선교사에 의해 1908년 2월 1일에는 지역 최초의 사립학교인 숭일학교, 수피아여학교가 문을 연다. 이처럼 속속 학교가 들어섰지만 1917년 광주군에 137곳

의 서당이 운영될 만큼 서당은 여전히 지역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시설이었다. 이후 1910년 6월 지금의 자연과학고(옛 광주농고)의 전신인 전라남도립 농림학교가 서문 밖 원래 사립측량학교 부지에 들어섰다. 1911년 2월 2일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 제126호에 따르면 공립광주농림학교는 설립 당시 농림업 및 측량학과 의 경우 수업연한이 3년, 속성과는 1년이었으며, 학생 수는 5개 학급에 52명이었다. 교장은 관찰사 신용희가 겸하고 교사는 30명 2동, 실습지로는 학교에서 1.1km 정도의 양림리에 있었다. 1912년 11월 신축교사를 완성해 서방면 신안리(옛 공수방면 유림 숲)로 이전했다.

근대교육시설인 학교가 속속 들어서면서 1925년에는 학교가 13곳으로 늘어났다. 광주는 행정도시이면서 동시에 수도인 경성, 평양, 대구 등에 이은 전국적인 교육도시로 정착되고 있었다. 당시 기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였고 광주~송정리 간 열차에는 책과 제모를 입은 청소년들로 가득했다고 그 해 발간된 '빛나는 광주(1925)'는 전하고 있다.

지금의 광주일고인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는 1920년 광주전 하안 1만5000평의 교지에, 광주교 전신인 광주공립중학교는 1923년 경양방죽을 바라볼 수 있는 구릉지에 자리를 잡았다. 앞서 광주공립보통학교에 이어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방공립보통학교(수창초등학교 전신)는 1921년 8월, 여학생을 가르치는 광주제2공립보통학교는 1924년 4월 개설됐다. 미국선교사가 아닌 지역 유지인 김형욱과 조만선 등이 설립한 광주사립보통학교는 1922년 4월 문을 열었다.

이 밖에도 1908년 11월 배영학교, 1920년 8월 서북여자재학원, 1922년 4월 청년야학부 및 청년학원, 1922년 12월 노동야학교, 1924년 6월 창명학원 등이 있었다. 한편 근대교육을 받으려는 한국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납부했던 보통학교비는 1912년 3424원, 1916년 3,577원, 1921년 2만4,719원 등으로 증가했고, 일본인들이 내는 학교조합비 역시 1912년 1만377원, 1916년 1만 6219원, 1921년 3만3790원, 1925년 6만8377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한편 1925년 당시 광주중학교, 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농업보통학교의 1인당 수업료는 2원50전, 수월료는 1인당 2원이었다.

조선총독부 전라남도고시 제150호에 의해 1931년 6월 26일 광주군 광주읍 궁정에 학생 수 100명, 학급 수 2학급으로 하는 광주공립상업보습학교의 설치가 인가됐고 조선총독부 전라남도 고시

제89호로 1934년 4월 23일부로 광주제1공립보통학교(광주공립보통학교) 부설 내남간이학교(광주군 지하면 내남리)와 대촌공립보통학교 부설 구소간이학교(대촌면 구소리)가 각각 설립됐다.

이에 따라 1907년 1학급 6명이었던 학생 수는 1936년 1361명까지 늘어났다. 1935년 10월 1일 광주부의 승격과 함께 조선총독부 고시 제549호는 학교조합령 제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광주학교조합은 폐지돼 광주부로 편입됐다. 이 때부터 광주부는 제1특별경제에 일본인 교육시설 예산을, 제2특별경제에 한국인 교육시설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공교육의 시작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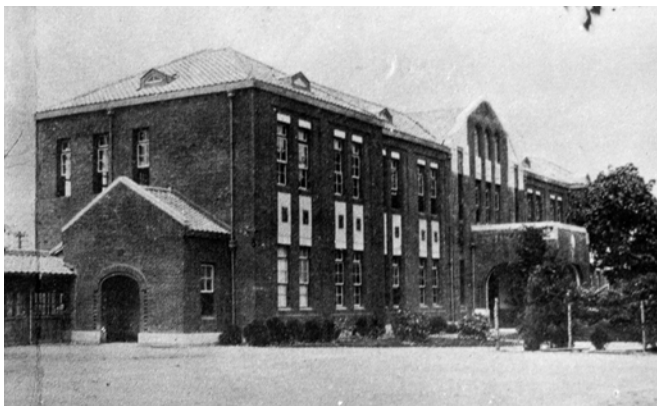
1938년 4월 9일자 조선총독부고시 제319호에서는 광주사범학교(광주교육대)의 위치, 학과의 종류, 부속 소학교 및 수업개시의 기일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광주사범학교의 위치는 전라남도 광산군 서방면(북구 풍향동)이며, 학과의 종류는 심상과, 강습과가 있었고 입학자격은 중학교 및 실업학교 졸업자였다. 강습기간은 1년, 소학교 수업연한은 6년이었으며 수업개시일은 1939년 4월 21일이었다.

또 광주공립농업학교는 1939년 8월 30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3487호를 통해 조선총독부로부터 이전신축에 필요한 광산군 서방면 용봉리(북구 용봉동)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인가받았다. 1940년 조선총독부 관보 제3901호(1940년 1월 25일)의 생도모집공고를 보면 당시 수업연한 4년인 광주대학공립고등여학교(광주여고)와 광주공립고등여학교(전남여고) 등이 각각 200명과 약 100명을, 조선총독부 관보 제3916호(1940년 2월 12일)에서 광주서공립중학교는 약 100명의 학생을 모집했다. 광주공립의학전문학교(전남대 의대 전신)는 1944년 4월 20일 조선총독부고시 제 617호에 따라 광주부 양림정 256번지에 수학연한 4년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5월 1일 개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d@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농업학교



고등여학교



조선대



전남대 의대 입학식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